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 선교회** : 오후 청파성서학당 이후에 선교회별 모임이 있습니다.
- 수양회준비회의** : 전교인 수양회 준비 회의가 오늘 오후 2:30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 속회방학** : 이번 주부터 각 속회가 방학에 들어갑니다.
- 평화세미나** : 평화위원회가 주관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평화세미나가 다음 주일(28일) 오후 1:30 교육관에서 열립니다.
- 신앙실천** : 메르스 희생자와 유가족들, 의료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감염방지를 위해서 개인위생에도 신경 쓰시다.

다음 주 설교 본문			
1부	삼하 1:17-27 / 시 130	2부	행 15:6-11
예배	고후 8:7-15 / 막 5:21-43	예배	

오늘 식당 봉사 : 강순배 국지연 서안나 류형민 이용석 강경화 성귀옥 이민범
 다음 주 식당봉사 : 성가대
 오늘설거지봉사 : 유치부, 아동부 교사
 다음주설거지봉사 : 2남선교회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수요성경연구	19:30	교육관
토요성경읽기	10:30	세미나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 성령강림 후 제4주 】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오소서 평화의 임금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20.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다 함께

♣ 공동기도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계속되는 메르스의 공포로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오랜 가뭄으로 농부들의 마음은 바짝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크신 능력의 손으로 전염병을 종식시켜 주시고, 이 메마른 대지에 생명의 단비를 내려주십시오.

주님, 이 나라의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북이 서로에게 총부리를 들이대며 전쟁을 벌인지 65년이 지났습니다. 그 깊고도 시린 상처가 이 땅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주님, 그 상처와 아픔을 치유해 주십시오. 남과 북이 분쟁과 대립의 철책을 거두고 야곱과 에서처럼 열싸 안고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 함께

♣ 위로의 말씀 고후5:17 인도자

♣ 교 독 문 72. 이사야58장 다 함께

♣ 영 광 송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 함께

대표기도 김재흥 목사

응 답 송 찬양대

찬 양 450.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다 함께

♣ 성경봉독 I. 삼상17:32-49 고후6:1-13 막4:35-41 배동준 선생
 II. 요엘 2:18-27 류건형 집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께

찬 양 사랑하는 자들아 찬양대

말 씬 I. 의의 무기를 들고 이범석 목사
 II.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김기석 목사

거뭇기도 다 함께

■ 헌금 영수기 및 속회 보고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신철 이해경 광정자 구명자 김광일 이부용 김근종 정옥영 김남종 오복순
 김대영 이효심 김도현 김명순 이교영 김성우 박유경 김애순 김영아 김용길
 최영혜 김용진 박호선 김종문 지명주 김지현 김훈동 유경순 김희진 박홍재
 문금석 박석희 조항미 박숙미 박예림 박윤숙 박종철 임옥기 안길상 이형숙
 오죽현 유성근 안상남 윤수진 윤주원 최윤선 은종인 이광석 이경희 이부곤
 이상준 이재문 이정은 이한림 김명희 임형욱 장영숙 전영린 정종삼 정현모
 조순덕 조현권 박아영 최 숙 현 진 홍성식 이유리 황현성 이오복

감사헌금

김경수 김성한 조영순 김태정 김흥기 박병구 김인순 윤순우 윤정덕 구성실
 이광석 이경희 이범석 류정욱 이부곤 이유일 김미희 이은혜 이인웅 오송경
 이자애 조운호 최재욱 이수정 홍성식 이유리 무명9

생일감사헌금

권미숙 권혁순 박혜경 마은경 배삼순

녹색꿈헌금

정수복 장미란 정현주 무명3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 음 장 소
예루살렘	백혜숙	박성희	정두리	방
안디옥	신진식	최경미	서원금	
가나안	장영숙	신영신	박경선	
베다니	박홍재	박홍재	조영순	
시온	권미숙	박미영	배삼순	
에베소	김금순	김금순	이봉옥	학
빌립보	곽권희	윤수진	윤미경	
가버나움	안홍숙	오현정	이수정	
나사렛	김경혜	홍춘숙	송양진	
다메섹	박혜경	박혜경	최숙화	
두란노1	김재흥	오자영		
두란노2	김재흥	송형운		
두란노3	이범석	이진영		
두란노4	이범석	곽상준		
두란노5	신진식	이오복		

▣ 마음으로 읽는 글

콩나물에 대한 예의

콩나물을 다듬는답시고 아무래도 나는 뿌리를 자르진 못하겠다 무슨 알량한 휴머니즘이냐고 누가 핀잔한대도 콩나물도 근본은 있어야지 않느냐 그위를 향한 발돋움의 흔적을 아무렇지도 않은 듯 대하지는 못하겠다 아무래도 나는 콩나물 대가리를 자르진 못하겠다 죄 없는 콩알들을 어둠 속에 가두고 물 먹인 죄도 죄려니와 너와 나 감당 못할 결핍과 슬픔과 욕망으로 부풀은 대가리 쥐뜰으며 캄캄하게 울어본 날들이 있잖느냐 무슨 녀마같은 낭만이냐 하겠지만 녀마에게도 예의는 차리겠다 그래, 나는 콩나물에게 해탈을 돕는 마음으로 겨우 콩나물의 모자나 벗겨주는 것이다

- 복효근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신진식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방문성	
장로 : 한완식 윤석철 한상익 김인걸 박홍재 김정민 하현철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김현동	

찬양	박예림
♣ 봉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 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다 함께
인도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마음 아파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아픔의 현장에 고통당하는 이들과 함께 계십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이 하시려는 일에 힘쓰며 사십시오.
다 함께:	아멘. 세상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만 할 뿐 선뜻 그 일을 위해 나서지 못했던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이 땅을 바라보시며 아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삼고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려는 일을 우리의 일로 삼고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 찬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 축복	담임목사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청파성서학당 / 강의: 김기석 목사	낮 집회 / 설교: 김기석 목사
선교회	저녁성경연구 / 강의: 이범석 목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신진식 전도사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장영숙 전도사	박숙영 선생 김문주 집사

6	영접위원	한완식 조문규 황현성 진정숙 이오복 김현주
	헌금위원	박홍재 유경순

권위의 본질

우리는 권위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 권위의 본질을 표현하기 위한 말로 ‘공휼(compassion)’보다 더 적합한 말을 찾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휼은 그런 권위의 핵심이자 본질이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 지도자는 미래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독교 지도자는 먼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공휼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 주었던 바로 그 공휼의 마음을 사람들이 신뢰하도록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

공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 우리는 사랑에 대한 갈망 및 세상에 만연해 있는 잔인함이 자신의 충동 속에도 뿌리내리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휼히 여기는 마음을 통해 우리는 친구의 눈 속에서 용서를 바라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고, 친구의 신랄한 얘기 속에서 증오심을 느끼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을 보면 우리도 그럴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사람들을 볼 때, 자신도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공휼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인간에 속한 모든 것이 낯설지 않습니다. 즉 어떤 기쁨이나 어떤 슬픔도, 어떤 삶의 방식이나 어떤 죽음의 방식도 그에게는 이질적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공휼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휼이 내부 집단 의 압력을 받아들이지 않고 언어와 국가, 부와 가난, 교육을 받은 자와 무지한 자 사이의 경계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휼은 당파를 만드는 무서운 행위로부터 사람들을 이끌어내, 모든 사람들이 서로 이웃이 될 수 있는 넓은 세계로 그들을 이끌어 줍니다.

그러므로 공휼의 권위는 인간이 그 형제를 용서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친구의 약점이나 적의 죄악을 자기 자신 안에서 발견하고, 모든 인류를 기꺼이 형제라 부르려고 하는 사람만이 용서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사역자는 자신의 전문성을 핑계 대며 공휼히 여겨야 하는 더 큰 임무를 등한시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기독교 지도자의 과제는 인간의 내면에 있는 최선의 것을 끄집어내 인간을 보다 인간다운 공동체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위험성은, 공휼히 여기는 동반자의 눈을 갖지 못하고 거리를 두고 정밀하게 분석하는 눈으로 진단만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내일의 사제들과 목회자들이 더 많은 기술을 훈련하는 것만이 그들이 미래에 직면하게 될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은 결국 오늘의 지도자들보다 더 큰 좌절과 실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굶주린 이들에게 더 많은 빵이 필요한 것처럼, 사역자들에게 더 많은 훈련과 조직이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랑 없이 주는 빵이 평화를 가져오기는커녕 전쟁을 초래할 수 있는 것처럼, 공휼이 없는 전문성은 용서와 하나님의 왕국을 진실되지 못한 것으로 만들 뿐입니다.